



이집트 ©Diana Matar

큐레이터 송수정의 추천 사진책

다이애나 마타르의 『Evidence』

존재와 부재 사이의 증거

정리 석현혜 기자

송수정은 출판부터 전시기획까지 이미지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왔다. <마리오 자코멜리>(한미사진미술관, 2012), <한반도를 바라보는 다섯 개의 시선>(뉴어메리흐트갤러리, 2014), <일상의 지도>(리수이미술관, 2015)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월드프레스포토상 심사위원, 세네갈 다카비엔날레 큐레이터, 서울루나포토 공동대표 등을 거쳐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연구기획출판팀장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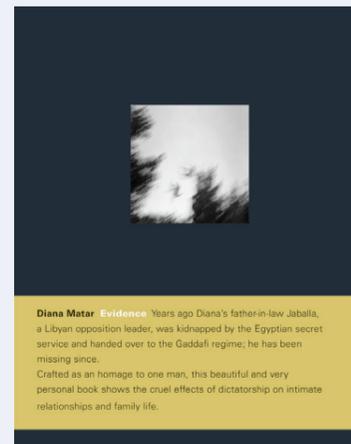
다이애나 마타르의 시아버지 자발라 마타르는 뉴욕에서 리비아의 외교관으로 재직하던 중 카다피 정권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 뒤로는 저항 세력을 규합한 대표적 반체제 인사가 되었다. 1990년 3월 12일, 자발라 마타르는 망명지 카이로의 자신의 집에서 이집트 비밀경찰에게 체포돼 카다피 독재 정권에 넘겨졌다. 1990년대 중반 리비아의 악명 높은 아부살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자발라로부터 편지 3통이 가까스로 가족들에게 전해졌지만 이후 소식이 끊겼다. 2011년 아랍의 봄과 함께 독재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다이애나 마타르의 사진집 『Evidence』와 남편 히삼 마타르의 논픽션 『귀환』은 모두 이 개인사를 다룬다. 그들의 작업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간극들, '사이'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존재와 부재, 역사와 개인,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술과 일상의 관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진다. 『Evidence』의 작업 노트는 "악보의 음표와 음표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의 공간들이 그러하듯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침묵은 어떤 소리를, 들리지 않으나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 소리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상 지시적 사진이 부재를 다루는 방식을 소리에 견주어, 작가는 침묵에 소리를 입히는 그 과정에 상상의 힘이 필요하다고 끝을 맺는다.

그러나 상상 또한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작가의 상상은 부재와 얽힌 사건, 기록, 기억, 취향, 사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희미해져 가는 그것들의 신호를 붙잡기 위해 작가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 모든 것들과 교감함으로써 부재를 시각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낸다. 그렇게 얻어진 사진들은 저마다 울림이 깊다. 요즘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사진이 가벼워졌다.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감각적인 스냅샷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소설보다 더 진지하고 무거울 때가 많다. 다이애나는 현대사의 질곡을 통과해온 가족의 일상을 사진과 일기 형식의 글을 곁들여 남다른 무게감으로 소개한다. 강제적 실종을 견뎌내는 일상에서 극적 서사는 절제되는 반면 잔잔하고 농밀한 이야기기가 담긴다. 다이애나를 처음 만난 것은 2014년 "휴스턴 포토페스트"의 포트폴리오 리뷰에서였다. 그 인연으로 2015년 8월 고은사진미술관의 <두 개의 달> 기획전에서 함께했다. 이 전시를 위해 제작한 작품들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 "휴스턴 포토페스트"의 <만남의 장의 발견>전에도 소개되었다. 이 전시는 포토페스트 리뷰어 중 10명이 추천한 작가들로 꾸러지는 일종의 우수 포트폴리오 전시였다.

귀환

Hisham Matar | 김병순 옮김 | 돌베개 | 344쪽 | 2018

히삼 마타르는 여덟 살이던 1979년에 리비아를 탈출한 이후 부모를 따라 나이로비와 카이로로, 그리고 홀로 파리와 런던으로 건너가 살았다. 카다피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는 리비아의 현실을 다룬 자전적 소설 『남자들의 나라에서』(왕은철 옮김, 현대문학, 2009)로 주목받았고,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여정에 관한 『귀환』으로 2017년 논픽션 부문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Evidence(증거)

Diana Matar | Schilt Publishing | 104쪽 | 2014

뉴욕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다이애나 마타르는 폭력의 이면을 심도 있게 다루는 작업을 해왔다. 대표작 『Evidence』는 리비아 독재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된 시아버지의 흔적을 통해 납치와 고문, 학살 등의 현대사를 다룬다. 이 작업은 런던 테이트모던, 독일 폭스방에센미술관,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등에서 전시로도 소개되었다.



리비아 벤가지의 법원. 독재시절, 많은 법률가들이 법원을 독립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정권에 반대한 반역죄로 처리되었다. 2011년 2월 17일의 혁명과 함께, 이곳은 시민 저항의 진원지가 되었다. ©Diana Matar



지중해. 리비아 새 정부는 아부살림 교도소에서 학살된 1,270명의 유해가 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믿고 있다. ©Diana Matar

리뷰 당시 다이애나는 작가로서의 연륜에 비해 몹시 겸손하고 진지했는데, 반면 그의 작업이 가진 주제와 무게, 밀도가 엄청났다. 그의 사진은 현실을 고발하지 않는다. 월드프레스포토상 심사 등을 하면서 '아랍의 봄'이 오는 과정을 다룬 다양한 형식의 사진들을 봤지만 다이애나의 작업의 결은 그와는 또 달랐다. 상처와 부조리를 깊은 일상으로 마주한 그의 사진은 자극적인 사건으로서의 기록 이미지를 넘어서는 또 다른 공명이 있었다.

그의 사진은 굉장히 잔잔하지만 그래서 더욱 묵직한 겹겹의 의미망을 만들어 낸다. 시아버지의 부재를 건디는 일상의 쓸쓸함과 그가 존재했던 장소에서의 희망, 그의 죽음을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는 감옥으로 향하기까지의 두려움과 망설임 등 다양한 감정이 혼재돼 있다.

네덜란드 쉴트 출판사에서 만든 사진집은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은 정직하고 기본에 충실한 사진책이다. 담백할수록 좋은 글이듯, 좋은 사진 또한 많이 가공할 필요가 없다. 쉴트 출판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인 마틴 쉴트 또한 고집스럽게 사진의 이런 가치를 발견하려는 인물이다. 책은 출간 당시 「뉴요커」, 「인디펜던트」, 「텔레그라프」 등에서 좋은 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처음 사진집을 마주하면 평범하고 편안한 편집처럼 보이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세심하고 사려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다. 이미지를 배열한 순서, 사진의 크기와 글이 놓인 위치, 적절한 시점에 여백을 활용해 여운을 남기는 등 요소요소의 섬세함은 깊은 여운과 함께 자꾸 들춰보게 만든다. 특히 중간중간 일기 형식으로 곁들인 글은 시적으로 아름답다.

남편 히삼의 「귀환」 한국어판은 돌베개가 출간했다. 책날개에는 “과거의 무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랑, 문학, 예술이 주는 위안에 관한 것이다”라는 소개가 있다. 출간된 지난해에 책을 읽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전혀 다른 두 작업을 마주한 흔치 않은 경험이었지만, 히삼의 책을 읽고 난 후 마치 두 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히삼의 책을 읽으면서는 다이애나의 사진집이 생략하고 있는 기록 사진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 반면, 다이애나의 은유적 풍경 앞에서는 히삼의 얘기들이 더욱 생생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두 권의 책을 통해 사진 속의 이야기, 글 속의 이미지가 교차하는 경험은 신선했는데 그것은 두 작가가 예술을 통해 교감하는 방식을 엿보는 과정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건디기 위한 그들의 삶의 태도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예술에 힘입어 침묵에 소리를 입히는 일상의 위로가 있다.